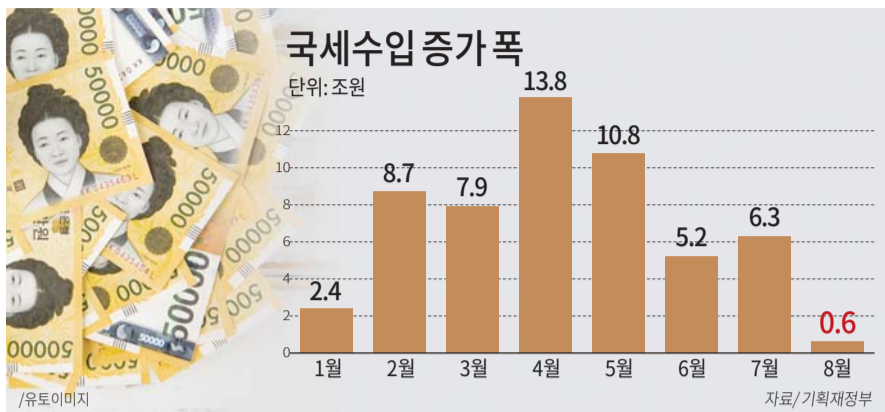


흔들리는 부동산·주식 시장... 8월 세수 증가 폭 급감

최근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 조짐
8월 소득세·부가가치세 전년 이하
“자산거래 증가세 상당히 둔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3조1000억 원 늘면서 가장 많이 견했다. 부가가치세도 8조3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 영향이 컸다.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8월에는 7월(6조3000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특히, 8월 들어 소득세(-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7000억 원)는 전년도

다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가 5월에서 8월로 미뤄지며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과 비교할 때 올해 8월 세수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으나 자산 세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어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될 수 있고, 7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도 10월 납부 예정인 부가세 등 소비 관련 세수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와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합한 정부 총수입은 1~8월 누계 39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조7000억 원 증가

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8조6000억 원 늘어난 427조3000억 원이었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 사업,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에 재정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세입이 늘며 적자 폭은 1년 전(70조9000억 원)보다 41조1000억 원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나라살림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 원 적자였다. 이 또한 작년보다 25조8000억 원 개선됐다. 8월 중앙정부 채무는 927조2000억 원이었다. 이 중 국고채가 832조7000억 원, 주택채 81조3000억 원, 외채 10조1000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won@metroseoul.co.kr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 조기 구축 추진”

3차 수출입물류비상 대응 TF 회의

로테르담 센터 29일 개장, 내년 개소
해상운송-현지물류 연결사업 추진

정부의 지원에도 수출입물류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가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를 조기 구축하는 등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제3차 수출입물류 비상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수출입물류 상황에 대응해 북미항 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박 배정, 물류비 및 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 물류에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그로별 물동량이 증가하고, 미국·유럽 등 항만 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현지 항만과 내륙 운송 적체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LA·롱비치항만 인근에 선박 60여척 이상이 하역을 대

기하고 있다. 연쇄적으로 국내 물류 차질로 이어져 최근 국내·외 내륙 운송비, 창고 보관비가 상승하는 등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부산항만공사와 KOTRA는 10~20% 낮은 비용으로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해외 물류 수요가 높은 곳에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네덜란드 로테르담 센터는 이달 29일 개장식을 갖고 내년 1월 개소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바센터는 내년 상반기 개소할 예정이다.

또 우정사업본부와 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킹을 활용해 중소화주 대상 해상운송과 현지물류(트럭 등)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0월 중 출항하는 미주 서안항 선박부터 적용되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 우체국이나 고비즈코리아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미주노선 국적사의 화물기 및 벨리카고 증편에 대한 신속 허가 등을 통해 정제된 해상운송의 대안으로 항공

운송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제도적으로는 수출입물류 생태계의 위기 대응력 강화와 선·화주 상생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운송계약을 확대하고,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해 해상운임 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 통합물류정보 플랫폼을 정비해 선박 입출항, 항만작업 현황 등에 대한 선·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은 “3분기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미주·유럽·동남아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9월 13척 등 최다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 선박 배정량도 9월부터 주당 480TEU에서 1300TEU로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월 최소 6척 이상 임시선박을 지속 투입하는 등 기업의 물류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금융위, 실수요자 자금조달 대책 마련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종합관리 아닌 실질적 보완책 필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금융권의 대출규제 강화와 관련 “대통령도 전세대출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확실히 주문한 만큼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와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하향안 정세였던 가계부채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세로 접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올해 들어 전세대출, 모기지, 집담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잠재적인 위협과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총량 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실수요자 대출도 상황이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금융위의 원론적 답이 아닌, 보다 실질적 보완책을 강구해 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서민 경제가 은행권이 아닌 고금리 대부업체로 방향 틀게 된다면 이것이 야말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지게 되는 일”이라며 “지난주 이와 관련된 민주연구원 토론회도 개최해 당과 전문가가 모여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 설계에 머리를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계속적으로 실수요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해결책 마련해 나가겠다”며 “금융위도 장기적 안목으로 나라 경제에 리스크는 줄이되 실수요자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전동킥보드, 제품에 따라 성능 천차만별

소비자원 전동킥보드 6개 제품 비교 주행거리 최저 21.1km·최대 42.4km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전동킥보드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한 결과, 주행거리가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등 제품별 성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동킥보드 6개 업체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주행성능, 충전시간,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대상 제품은 최근 3년 이내 전동킥보드 구입·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35개 제품 중 소비자 선호도 상위 6위 제품인, 나노휠(NQ-AIR 500), 롤리고고(LGO-E350lite), 모토벨로(M13), 미니모터스(스피드웨이 미니4 프로), 세그웨이-나인봇(E45K), 유로휠(EURO 8 TS600 ECO)(제품명 가나다순)이었다.

시험 결과, 방수 시험, 하중 시험, 고온·저온·상온·다습환경노출 시험 등 내구성과 배터리의 저전압보호, 단락, 충돌, 충격 등에 의한 발화, 폭발 여부 등 배터리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행거리, 속도유지 성능, 등판 성능, 충전시간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주행거리는 완충한 상태에서 최

저 21.1km에서 최대 42.4km로 제품 간 약 2배의 차이가 났다.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Wh)은 제품별로 351~616Wh로 차이가 있었고, 충전 전력량이 가장 많은 유로휠 제품의 주행거리가 가장 길었다.

방전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제품별로 5.6~7.2시간이었으나, 충전 전력량과 충전시간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필요 전력량이 605Wh인 미니모터스는 충전시간이 6.4시간이 소요됐으나, 이보다 훨씬 적은 351Wh의 전력량이 필요한 세그웨이-나인봇은 충전시간이 6.8시간으로 더 길었다.

경사로를 오르는 등판 성능을 시험한 결과, 배터리 표시 전압이 높은 미니모터스, 유로휠 2개 제품이 주행중반까지 10도의 경사로를 20m 이상 오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도로교통공-CJ대한통운

택배기사 교통안전 지킨다

인식개선 캠페인·안전교육 등 진행

도로교통공단과 CJ대한통운이 1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택배종사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사회적 안전 가치를 동반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택배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행정적 지원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공단은 택배기사들에게 개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사례 등을 전달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1년간 무사고·무위반 운전 시 운전면허 벌점을 상계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소개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등 CJ대한통운과 함께 다양한 교육운영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대형트럭이 통과하는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근처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교통사고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교통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세종=한용수 기자